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43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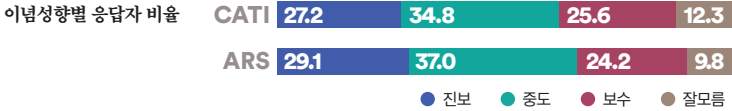
제58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2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22	100.0%	1,02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성별	남성	521	51.0	507	49.6	0.97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1	49.0	515	50.4	1.03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만18~29세	172	16.8	166	16.2	0.97
응답률	10.4% [총 통화시도 9,868명]			30대	159	15.6	154	15.1	0.97
조사기간	2023년 10월 20일 ~ 10월 21일(2일간)			40대	193	18.9	184	18.0	0.95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0	18.6	198	19.4	1.04
				60대	170	16.6	174	17.0	1.02
				70세 이상	138	13.5	146	14.3	1.06
			지역	서울	191	18.7	192	18.8	1.01
				인천·경기	326	31.9	326	31.9	1.00
				대전·세종·충청	112	11.0	107	10.5	0.96
				광주·전라	102	10.0	99	9.7	0.97
				대구·경북	97	9.5	100	9.8	1.03
				부산·울산·경남	157	15.4	153	15.0	0.97
				강원·제주	37	3.6	45	4.4	1.22

성별

지역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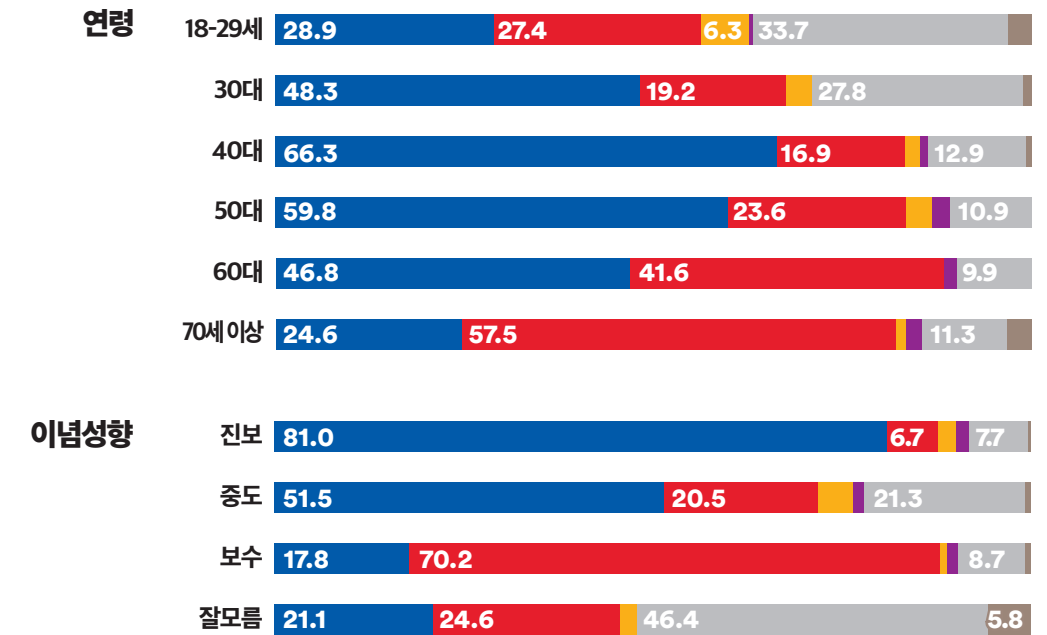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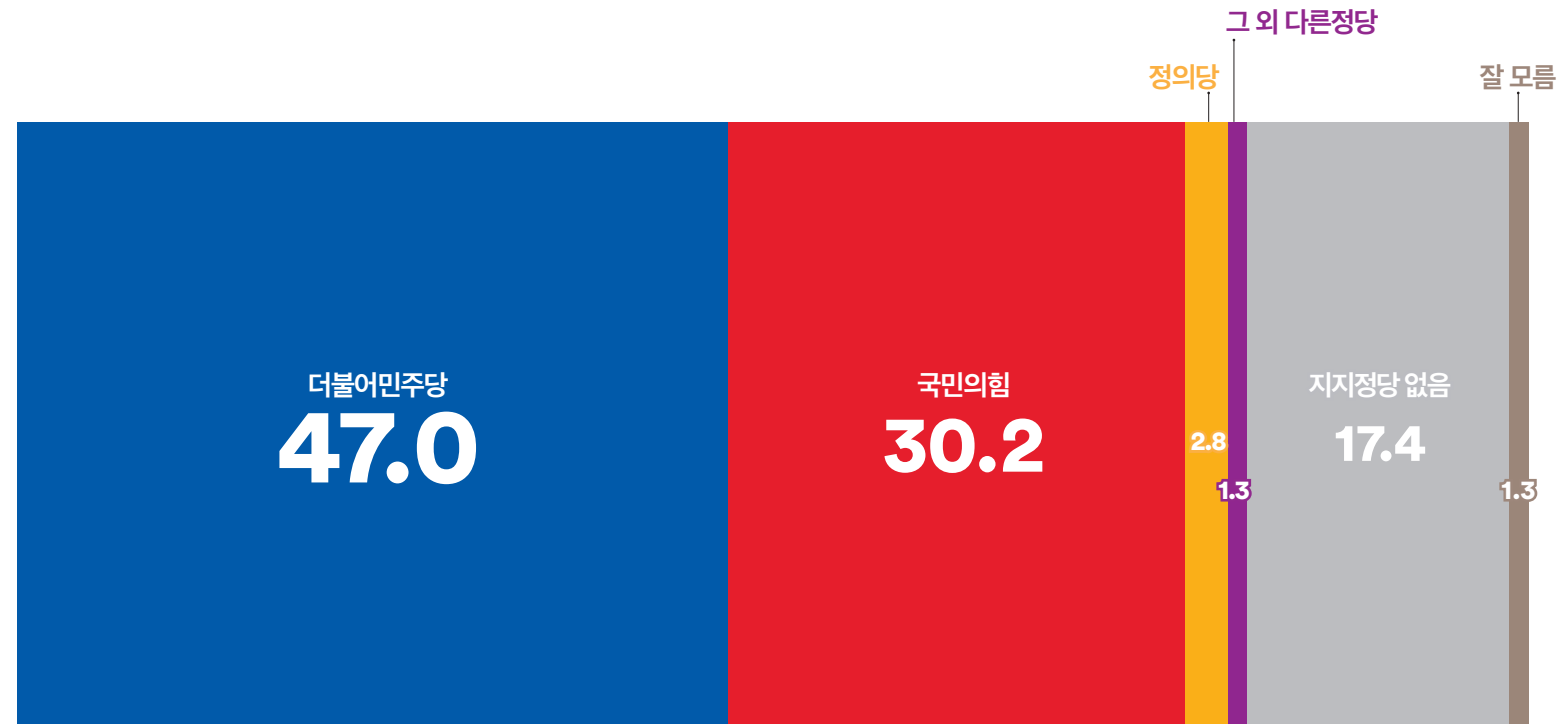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4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성별	남성	531	52.9	498	49.6	0.94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73	47.1	506	50.4	1.07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만18~29세	121	12.1	163	16.2	1.35
응답률	2.3% [총 통화시도 44,309명]			30대	141	14.0	151	15.0	1.07
조사기간	2023년 10월 20일 ~ 10월 21일(2일간)			40대	194	19.3	180	17.9	0.93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3	196	19.5	0.92
				60대	187	18.6	172	17.1	0.92
				70세 이상	147	14.6	142	14.1	0.97
			지역	서울	191	19.0	188	18.7	0.98
				인천·경기	326	32.5	320	31.9	0.98
				대전·세종·충청	106	10.6	106	10.6	1.00
				광주·전라	98	9.8	98	9.8	1.00
				대구·경북	99	9.9	98	9.8	0.99
				부산·울산·경남	142	14.1	151	15.0	1.06
				강원·제주	42	4.2	43	4.3	1.0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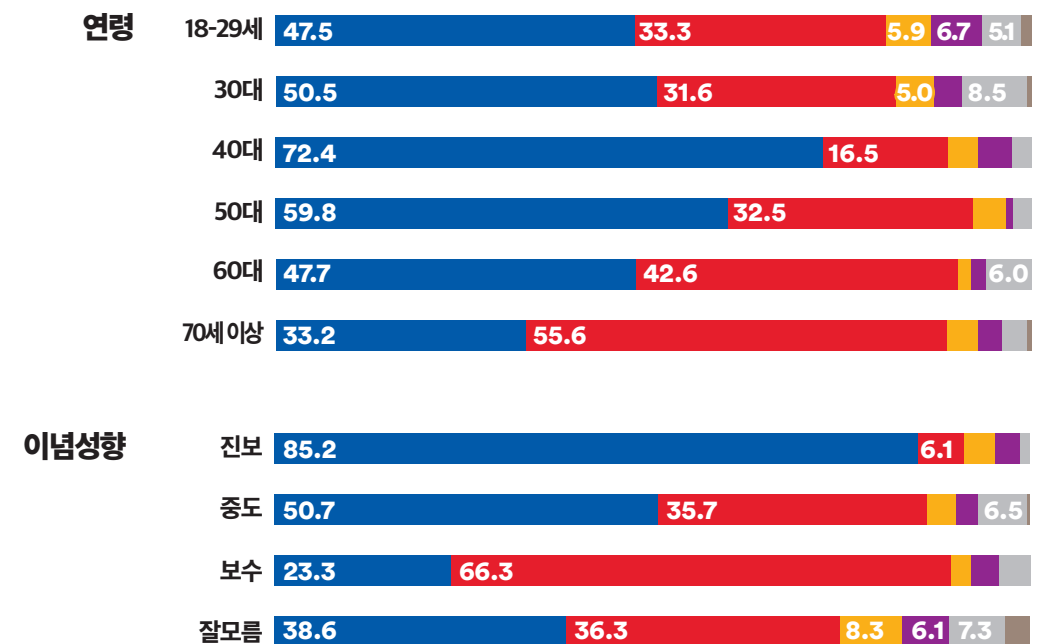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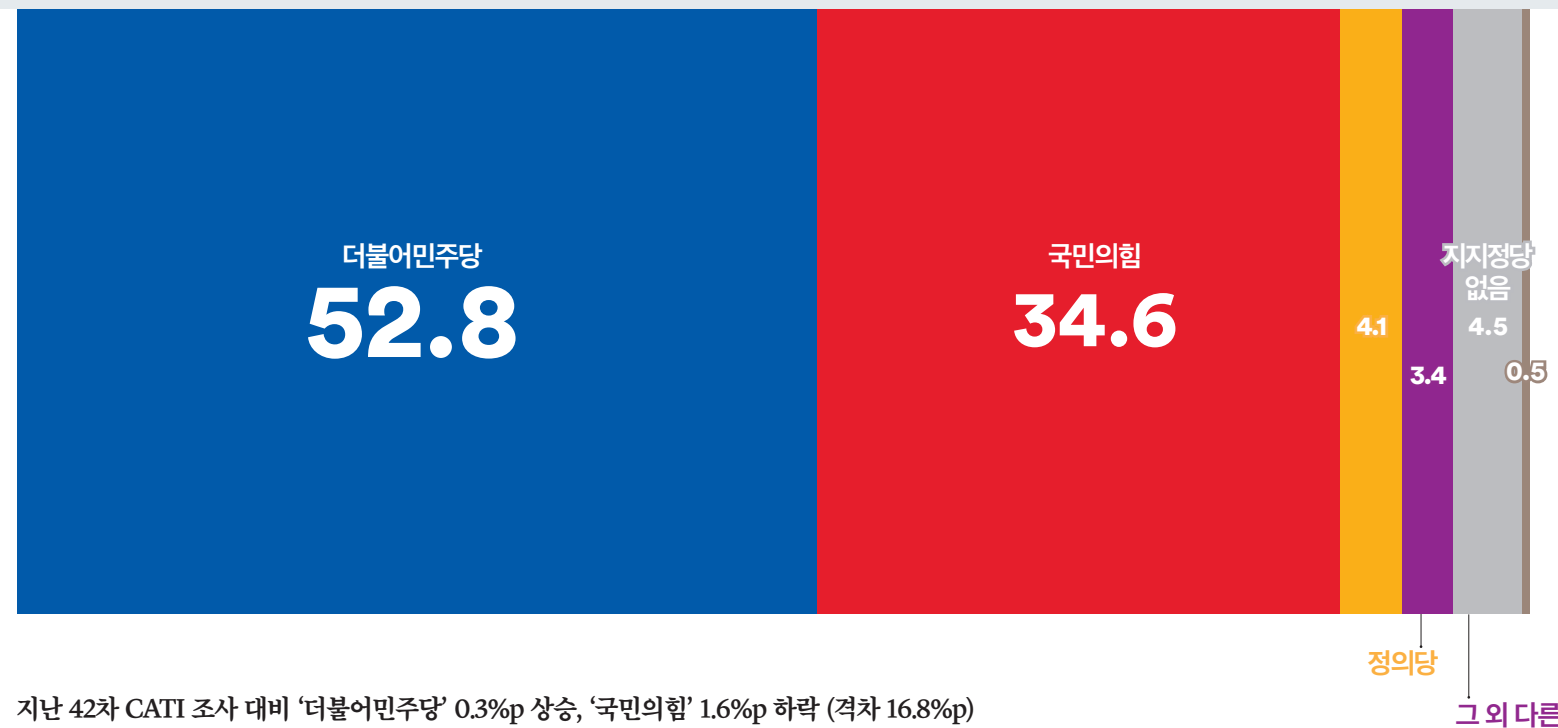
지역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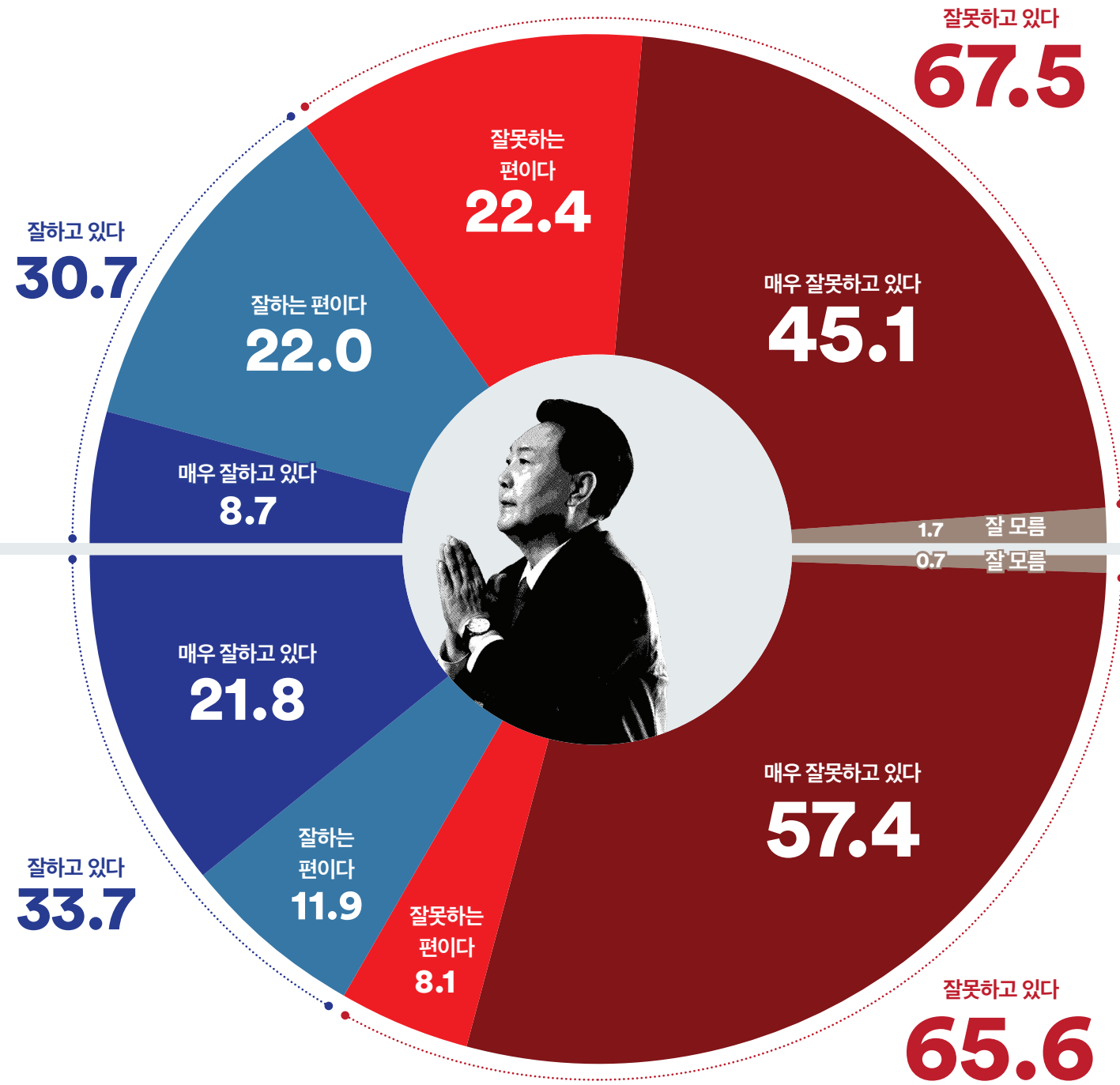


지난 42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3%p 상승, '국민의힘' 1.6%p 하락 (격차 16.8%p)
 지난 57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4%p 하락, '국민의힘' 2.5%p 하락 (격차 18.2%p)
 두 조사 모두 30~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이 우세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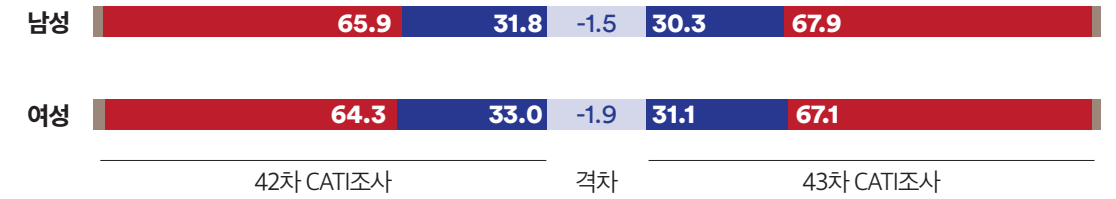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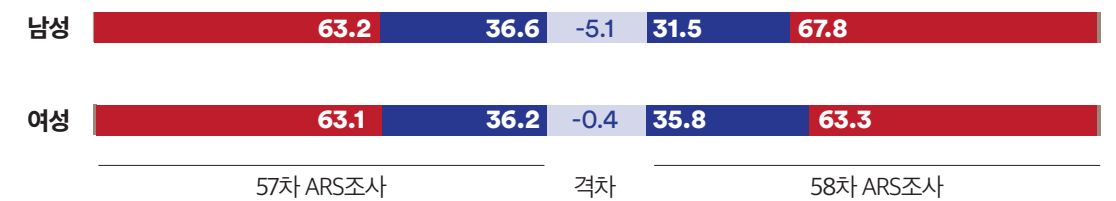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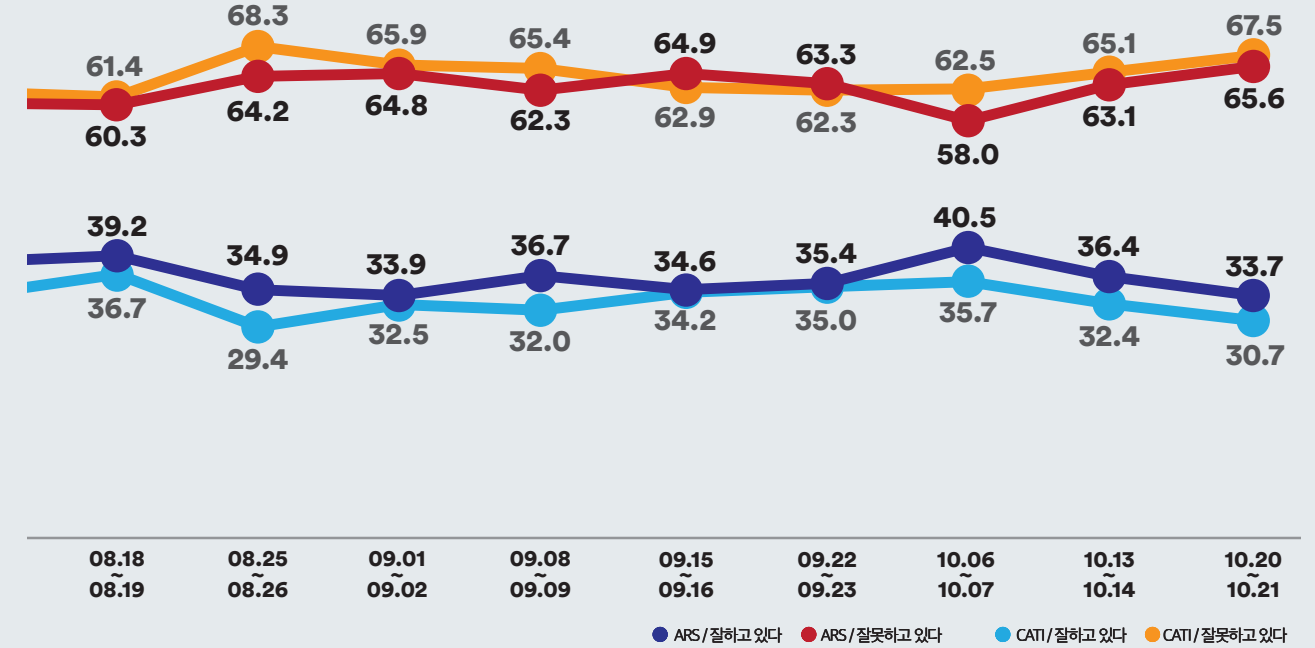
CATI



지난 42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1.7%p 하락, '부정'평가 2.4%p 상승 (격차 36.8%p)
 지난 57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2.7%p 하락, '부정'평가 2.5%p 상승 (격차 31.9%p)
 수도권, 충청, 호남(CATI PK 포함)에서는 '부정' 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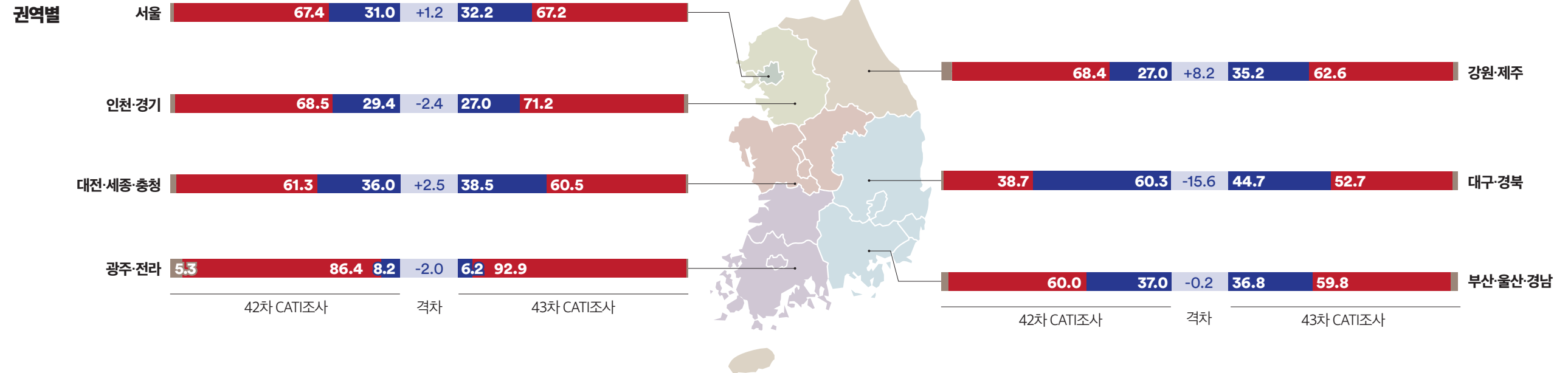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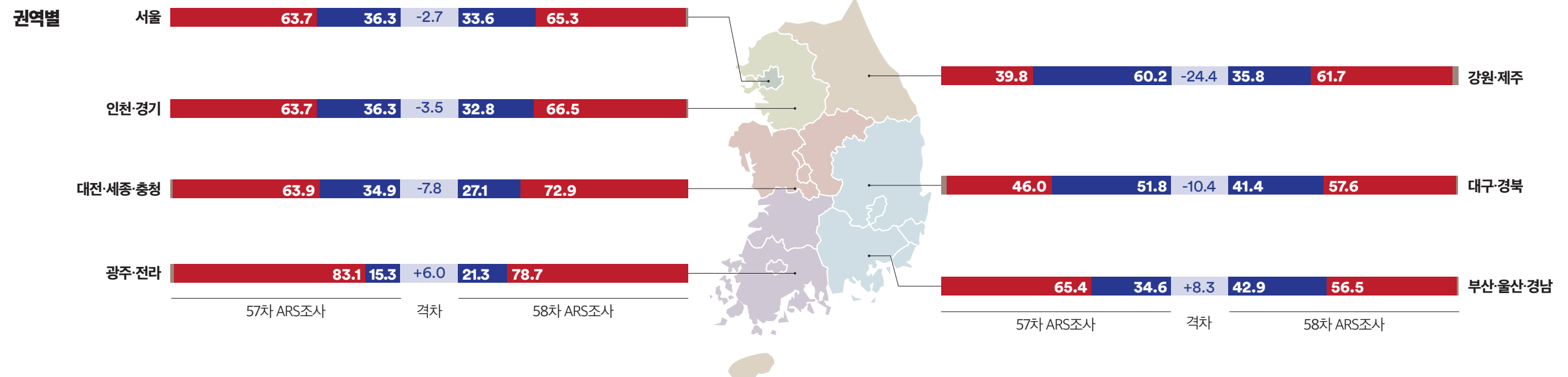
격차 | 잘못하고 있다 | 잘못하는 편이다 |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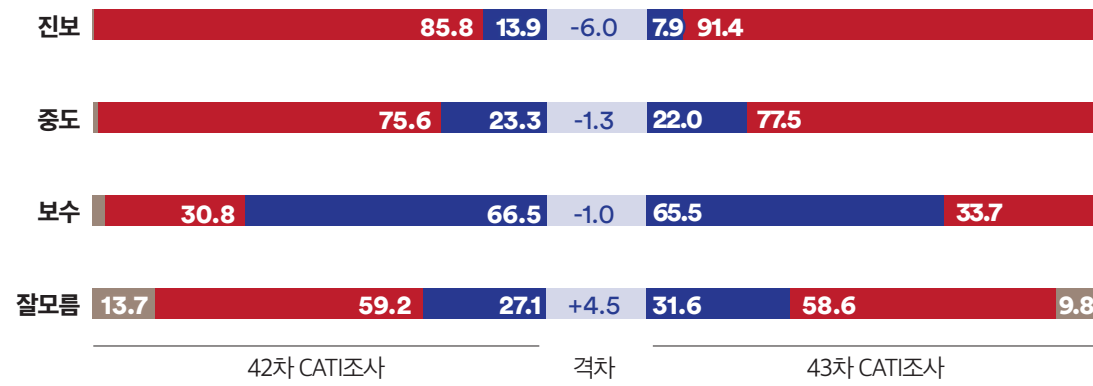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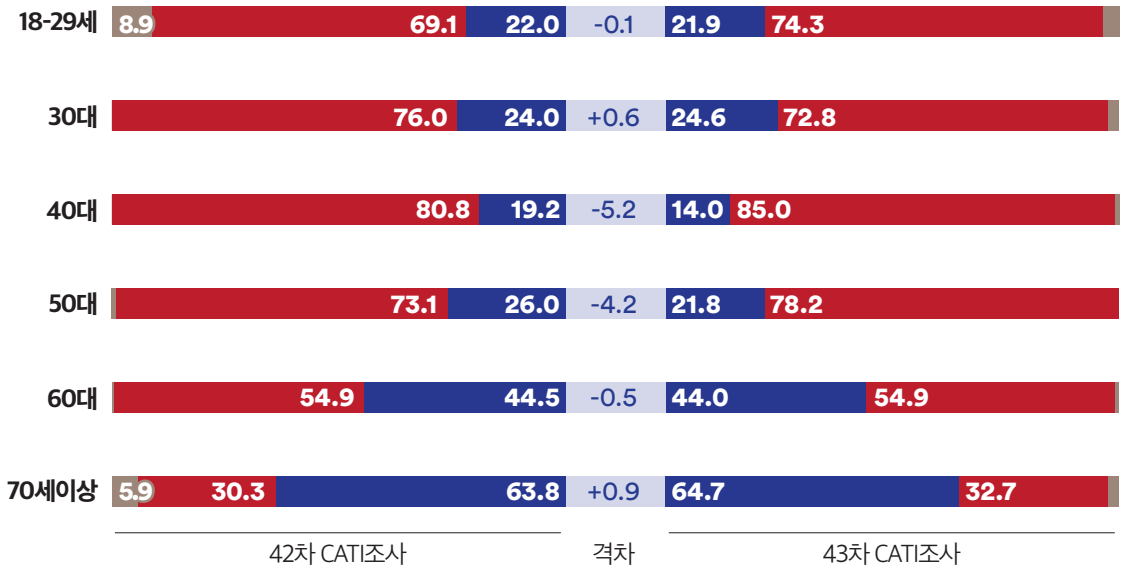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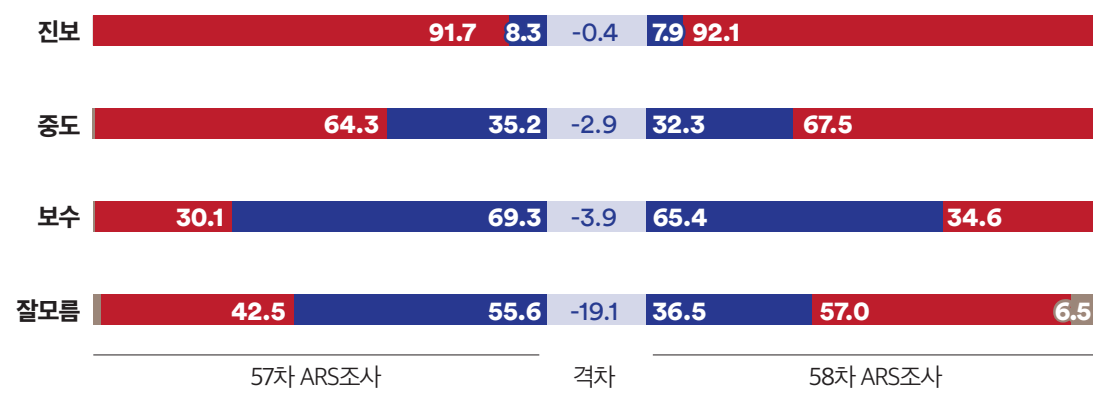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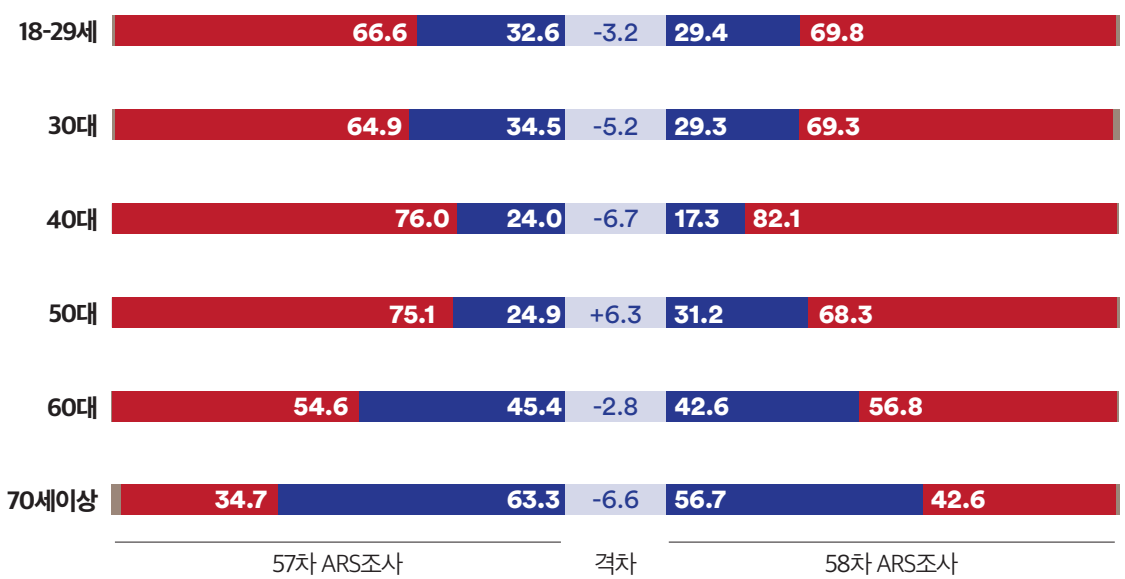


ARS

이념성향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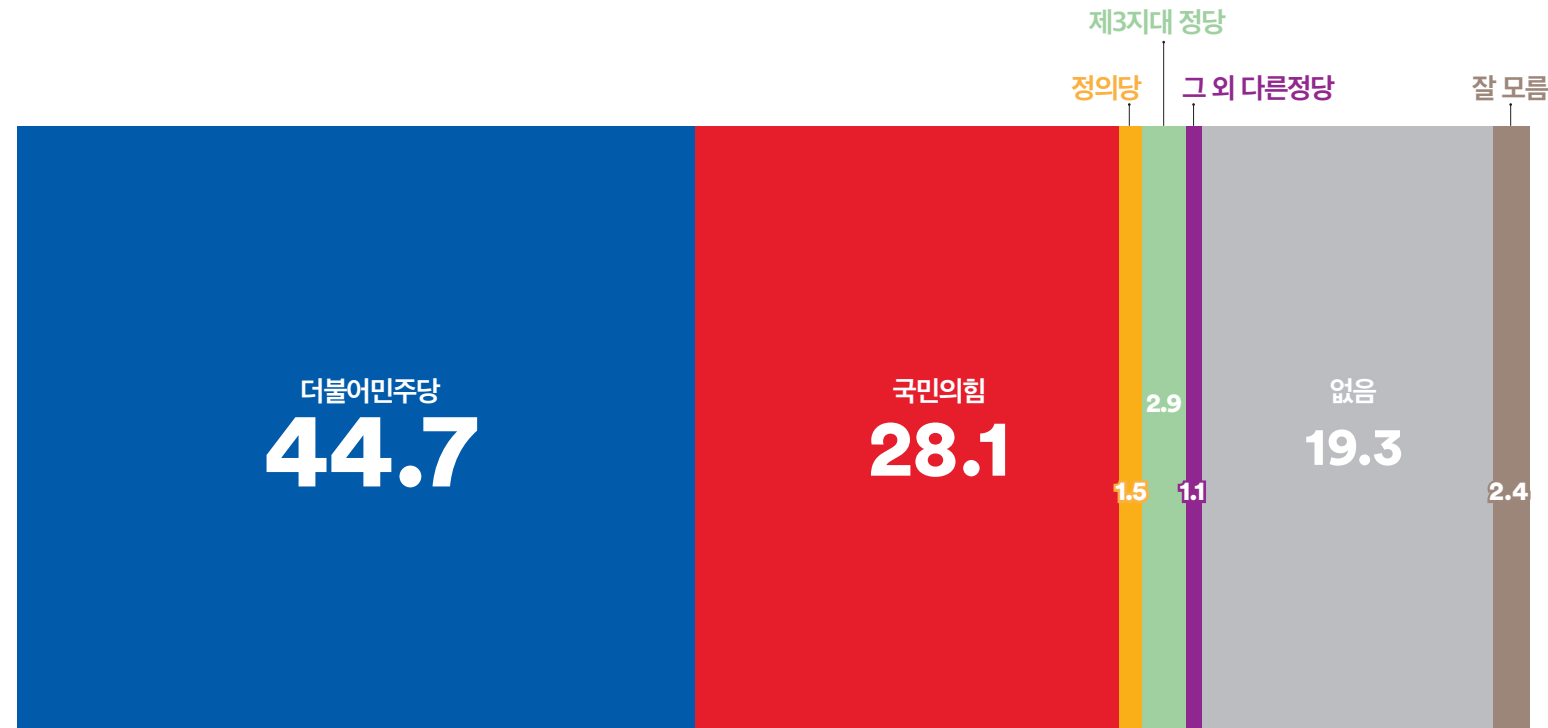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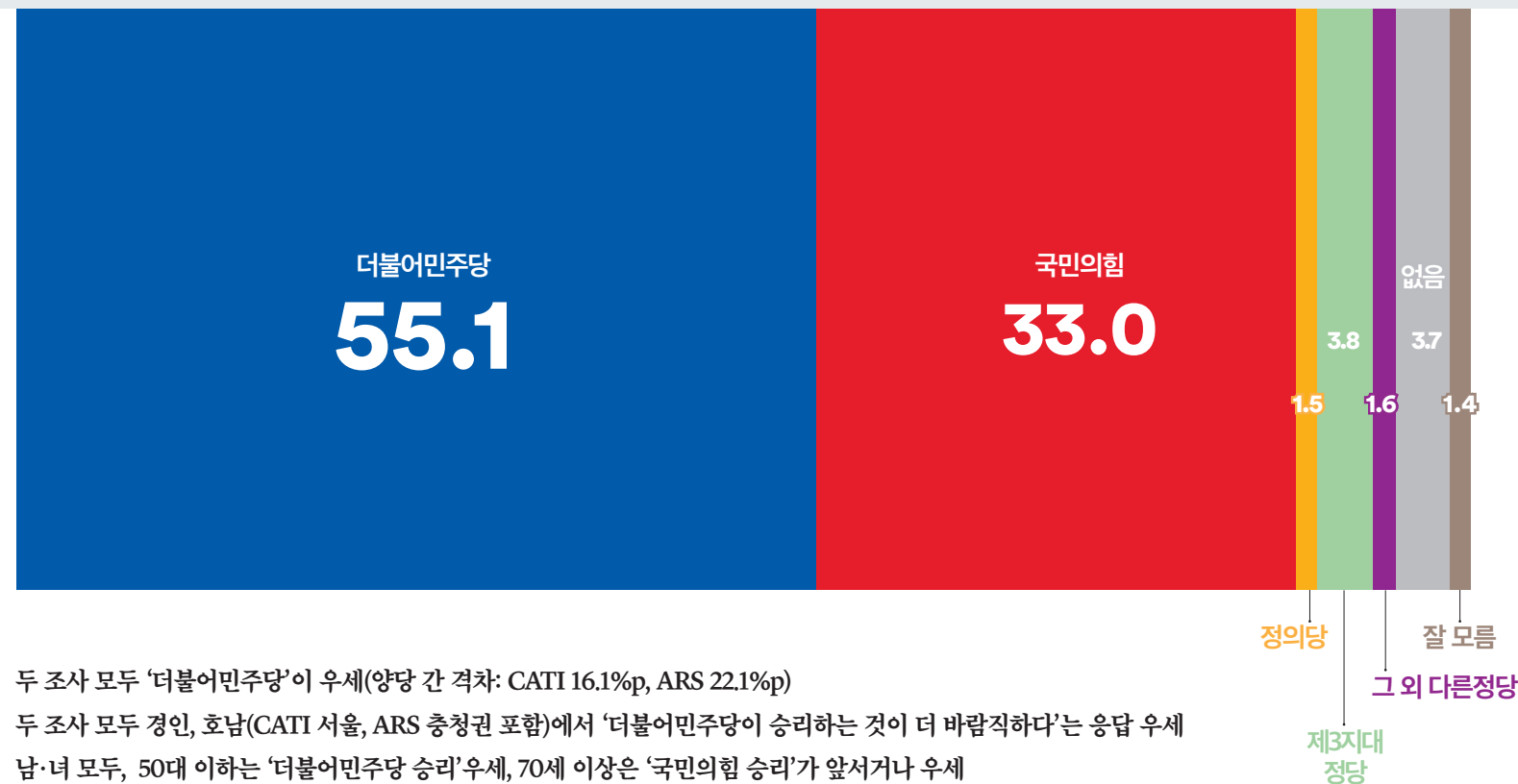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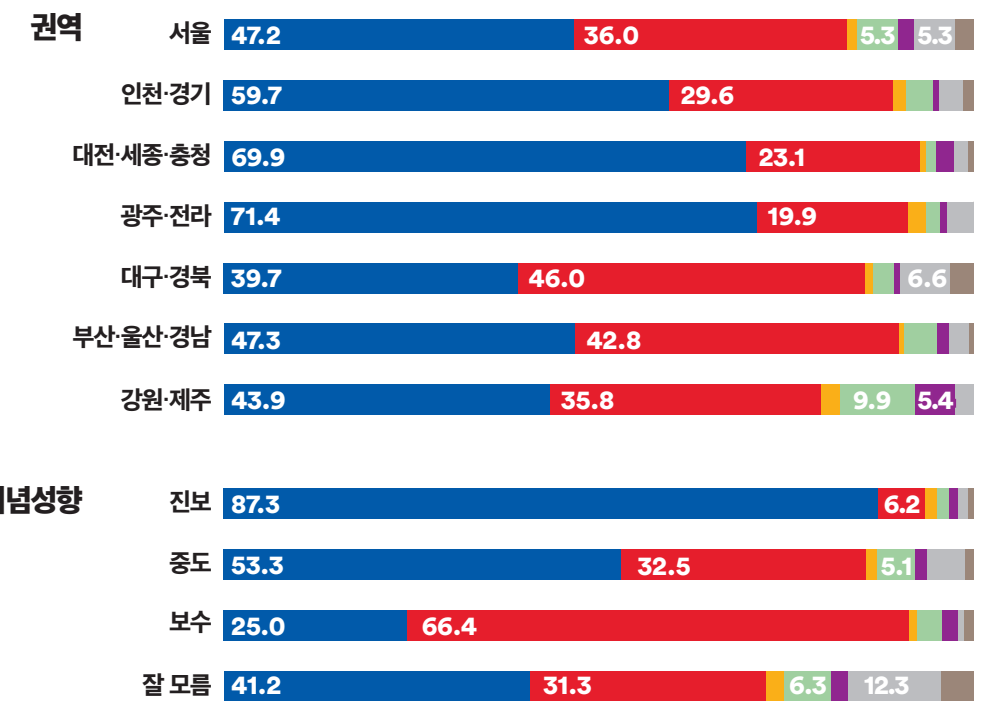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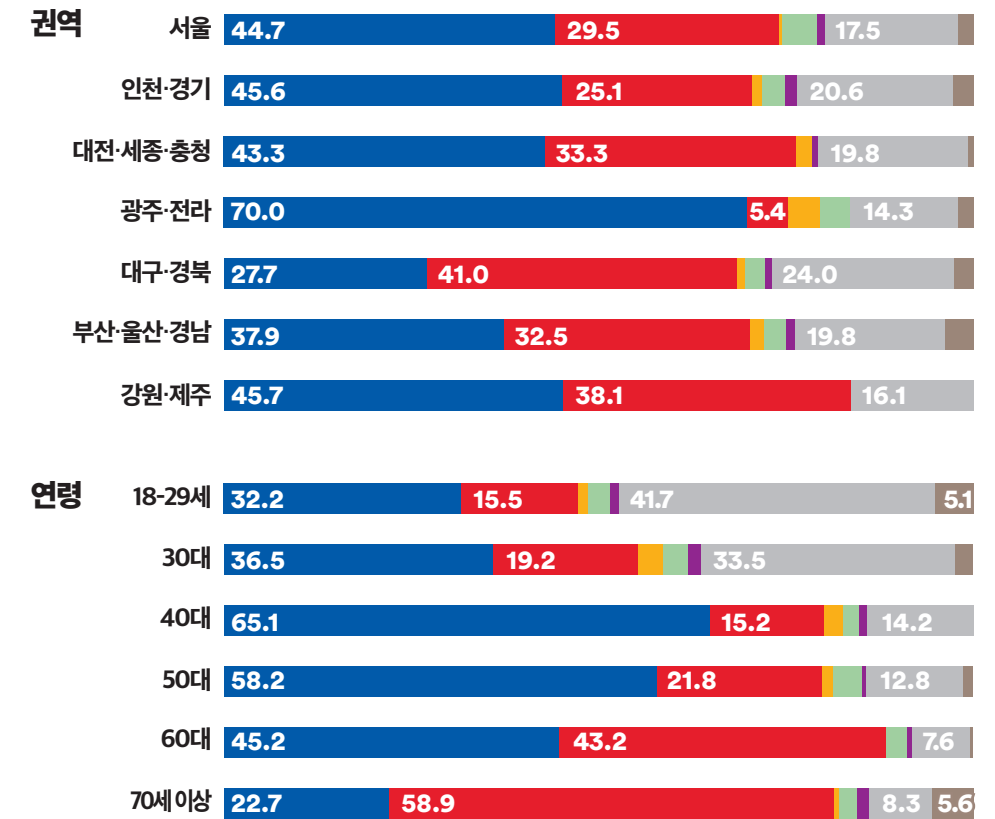


ARS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우세(양당 간 격차: CATI 16.1%p, ARS 22.1%p)

두 조사 모두 경인, 호남(CATI 서울, ARS 충청권 포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응답 우세
남·녀 모두, 5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승리'우세,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승리'가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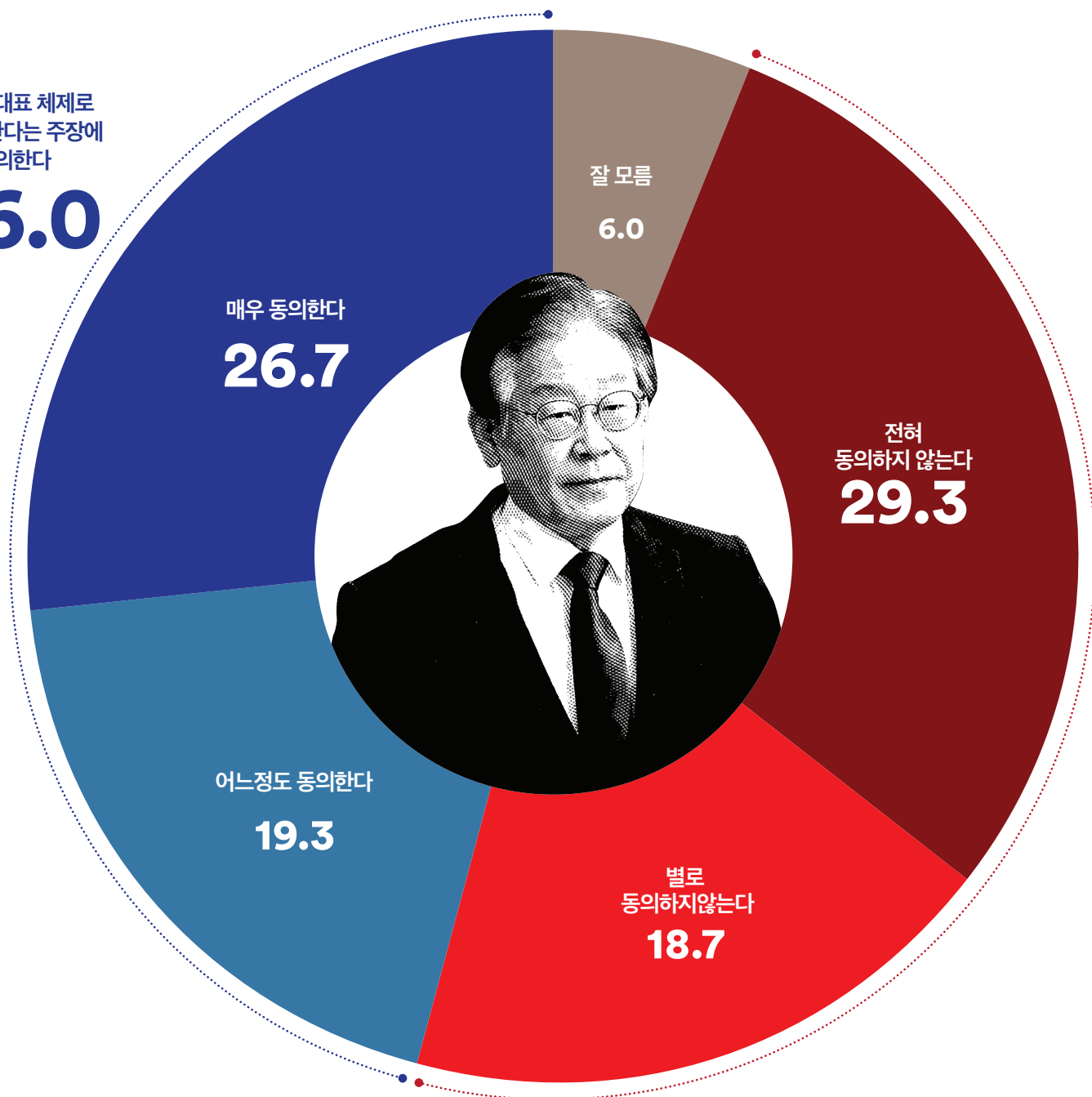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제3지대 정당
 ■ 그 외 다른정당
 ■ 없음
 ■ 잘 모름



Q.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46.0



잘 모름
6.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9.3

매우 동의한다
26.7

어느정도 동의한다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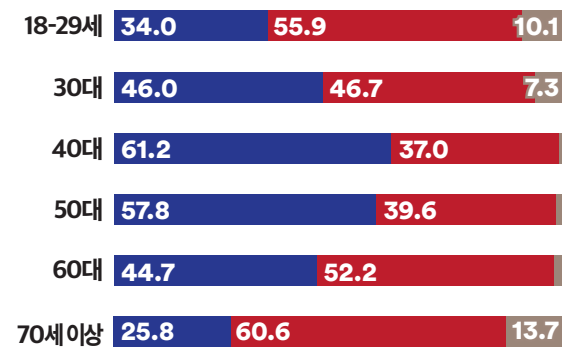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8.7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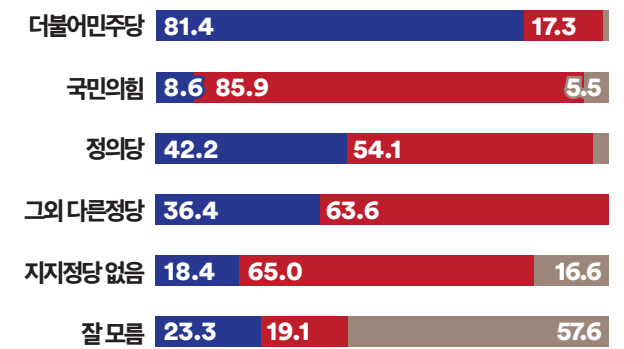
48.0

CATI 33차* 결과 (동의 44.4%, 비동의 50.1%)와 비교하면 '동의' 응답은 1.6%p 소폭 상승, '비동의' 응답은 21%p 하락
호남권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충청·TK·PK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음
수도권에서는 '동의·비동의' 간 응답 격차 초박빙
40·50대는 '동의한다', 18·29세와 70세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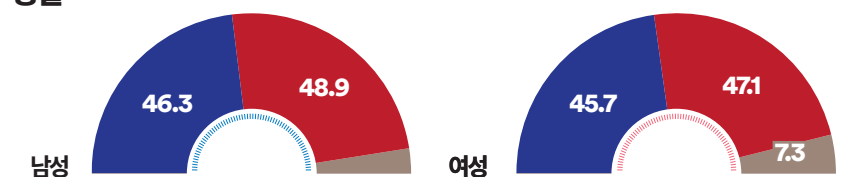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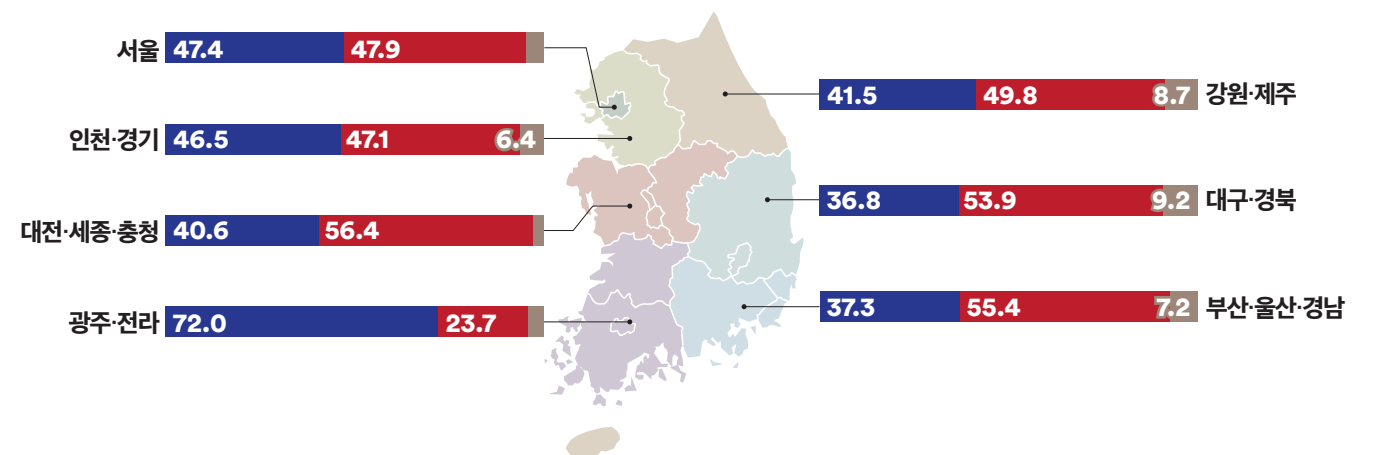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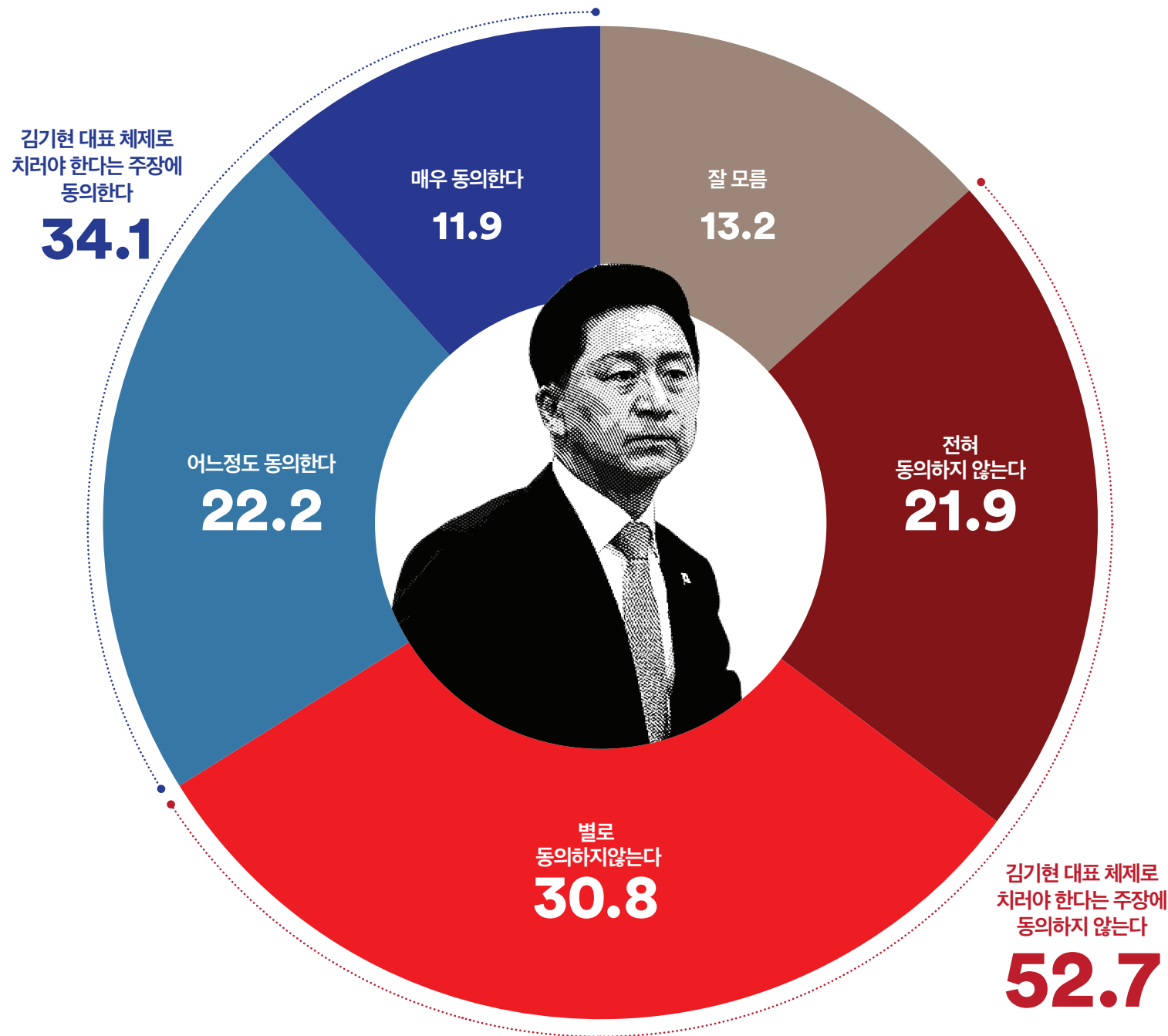


* CATI 33차 조사: 8월 4~8월 5일 진행

이재명 대표 체제에
동의한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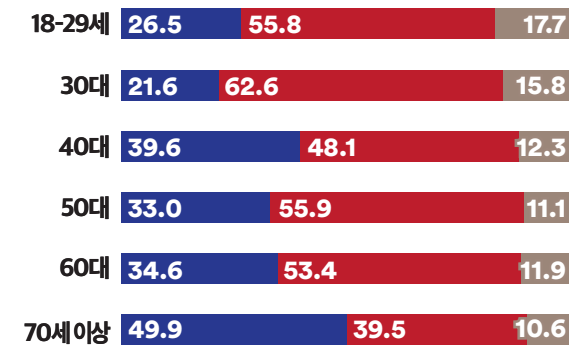


Q. 국민의힘 차기 총선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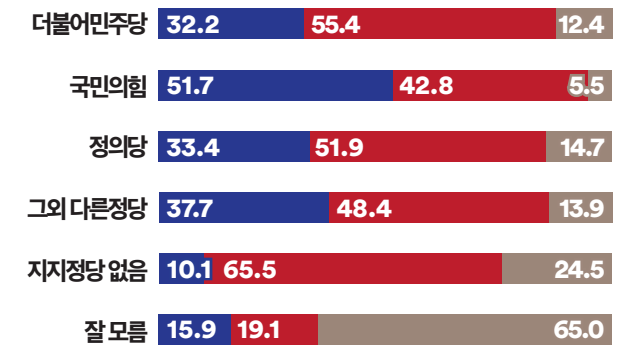


모든 권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앞섬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세, 보수 강세지역인 TK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앞섬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가 앞서거나 우세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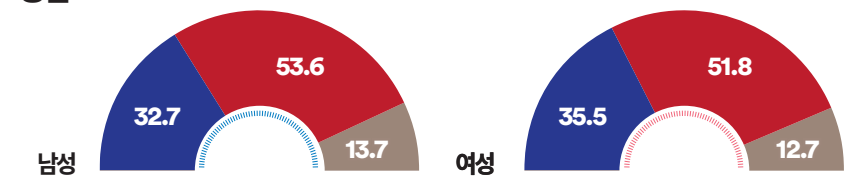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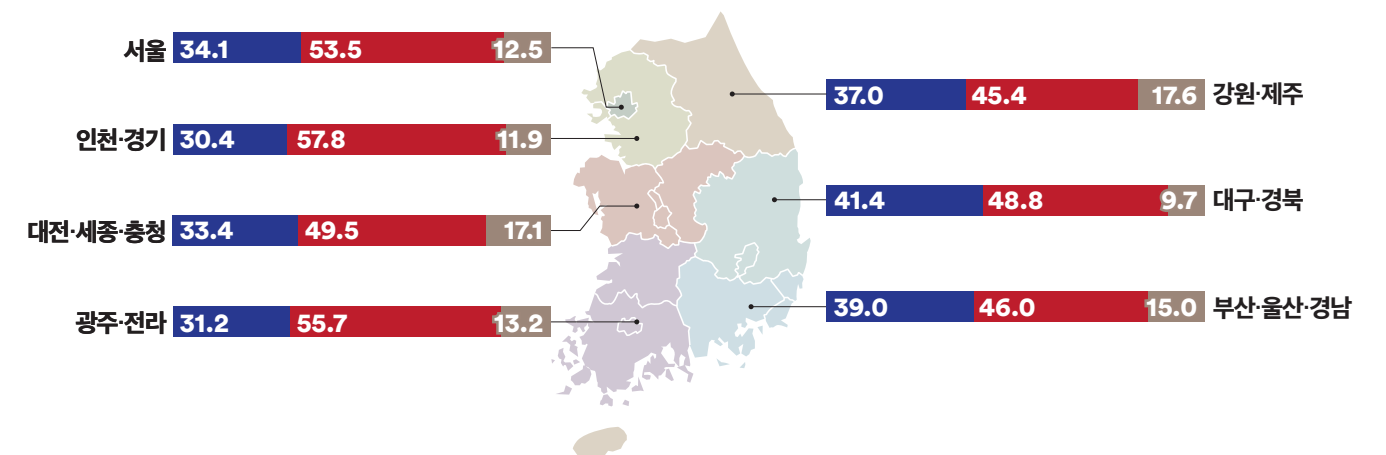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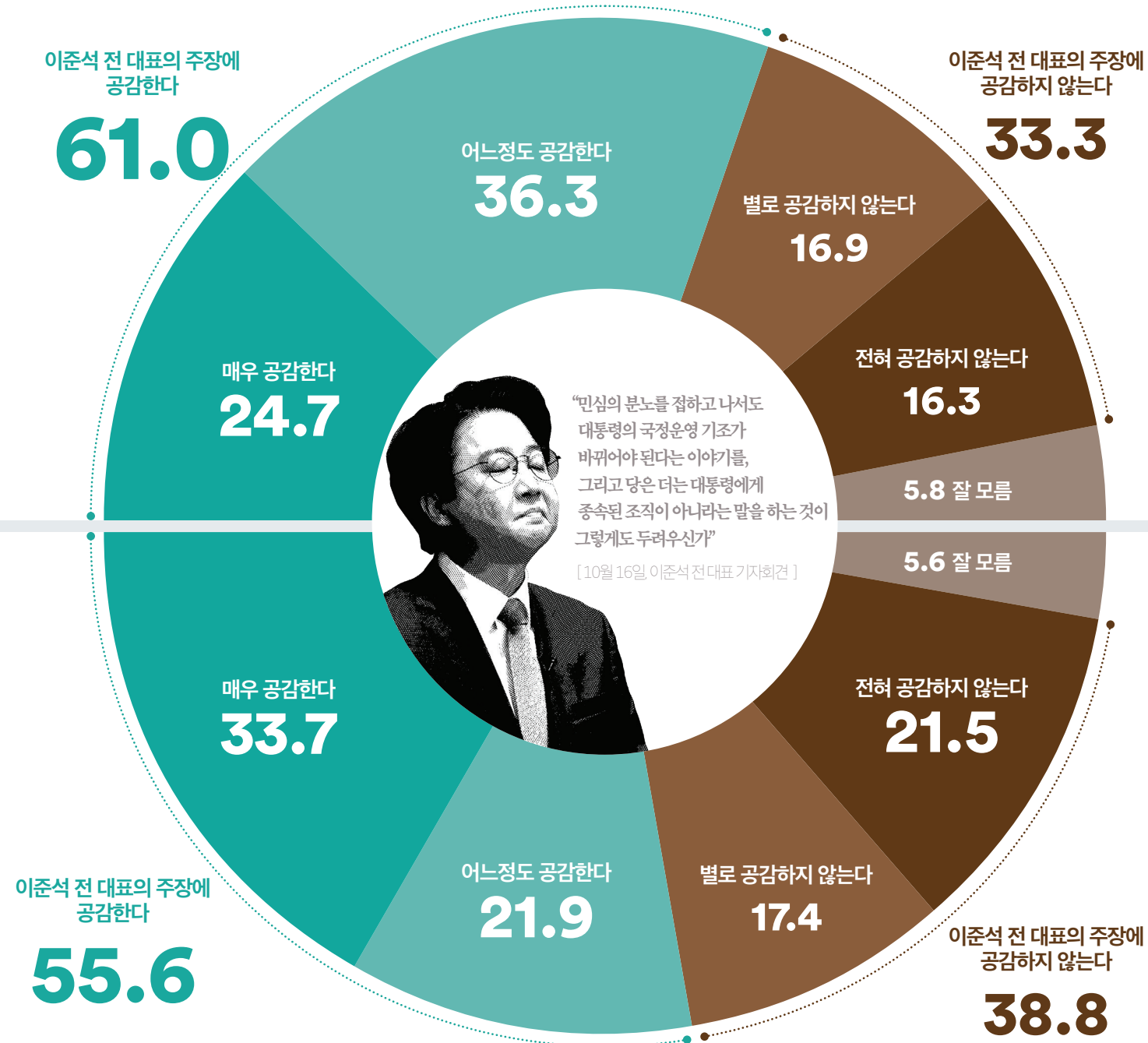
권역



김기현 대표 체제에 동의한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Q.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국정 기조를 바로 잡아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는데, 이 전 대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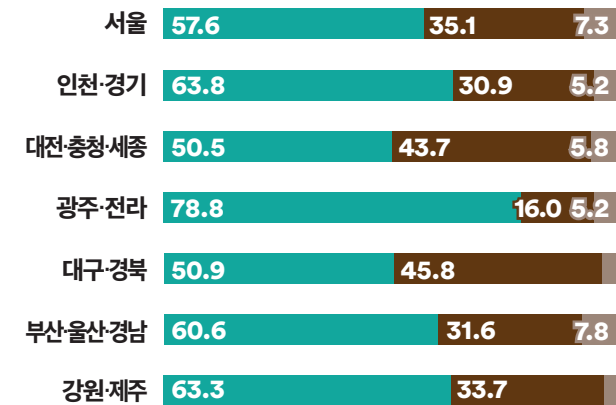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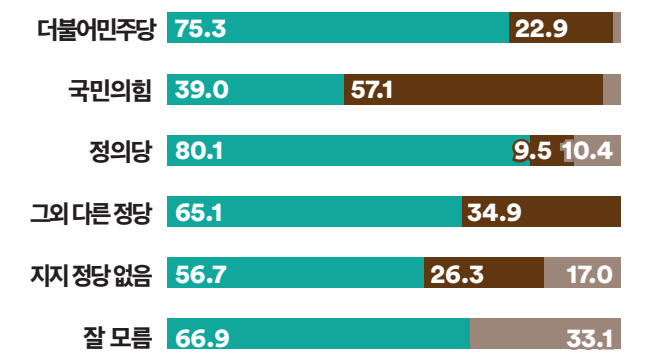
ARS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섰고 수도권과 호남(CATI는 PK포함)에서는 해당 응답이 우세
50대 이하(CATI 조사는 60대 포함)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우세, ‘공감한다’는 응답도 CATI 39.0%, ARS 29.0%로 적지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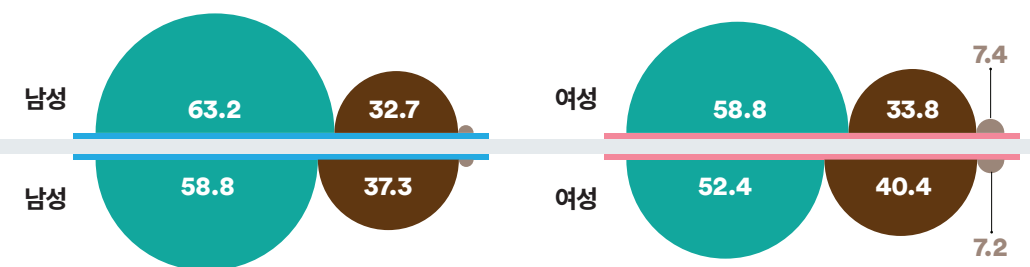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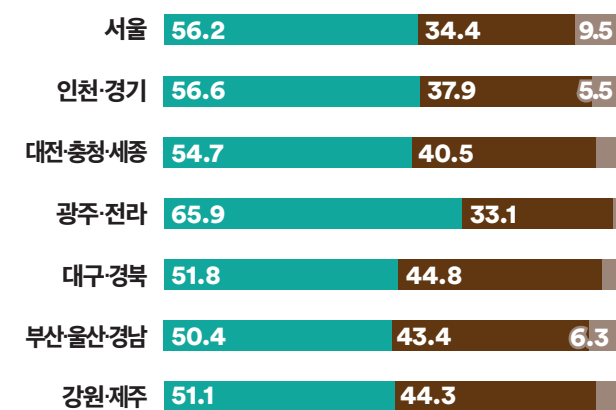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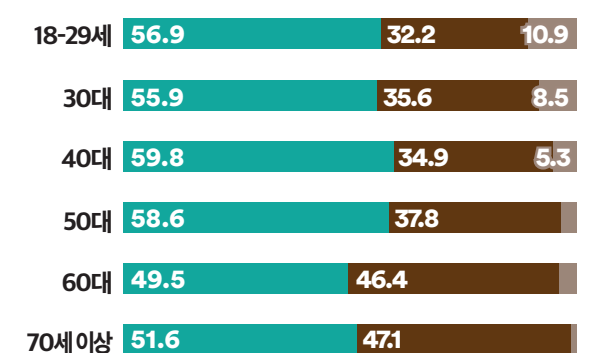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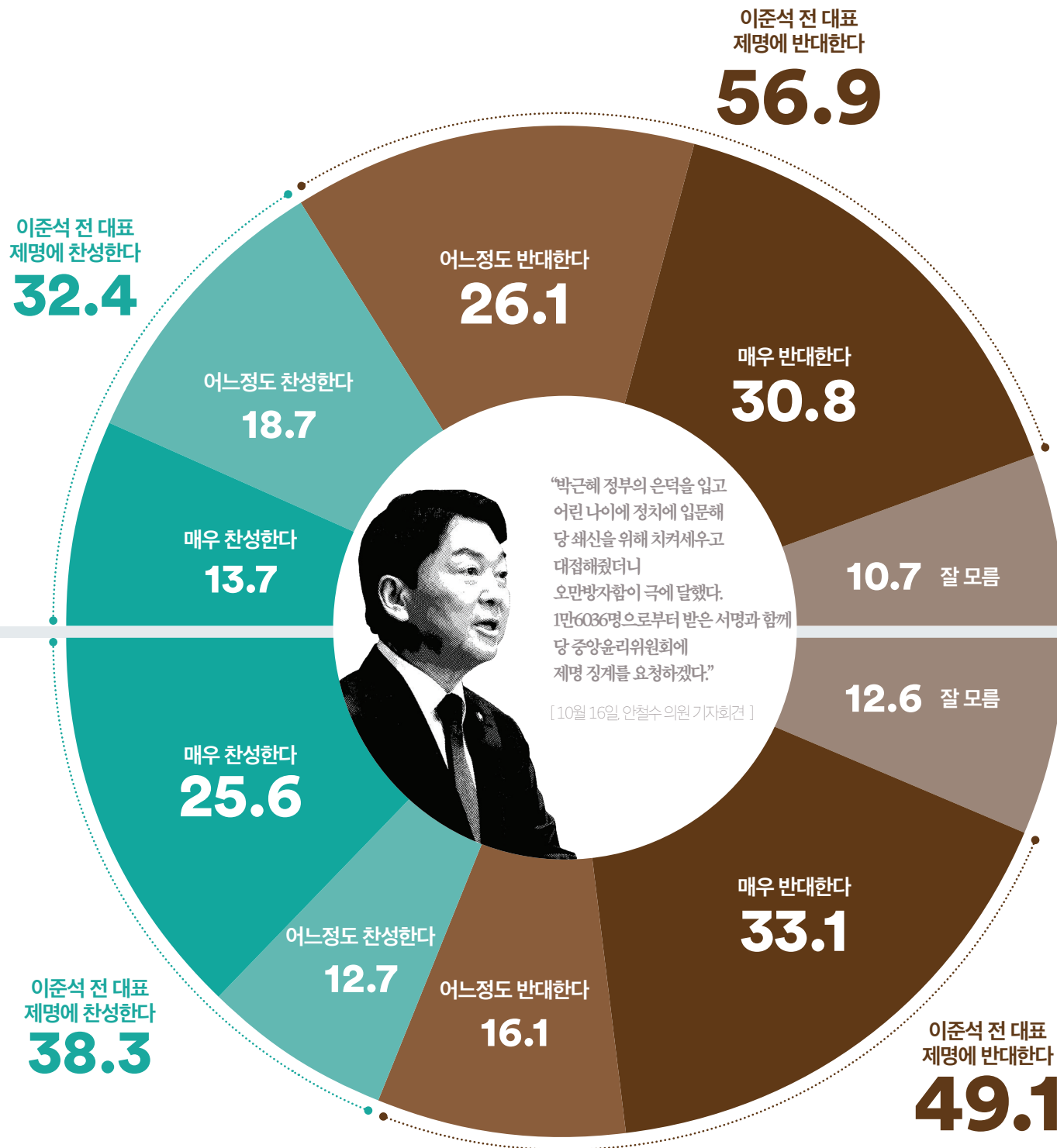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안철수 의원의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요구

Q. 같은 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도 내부 총질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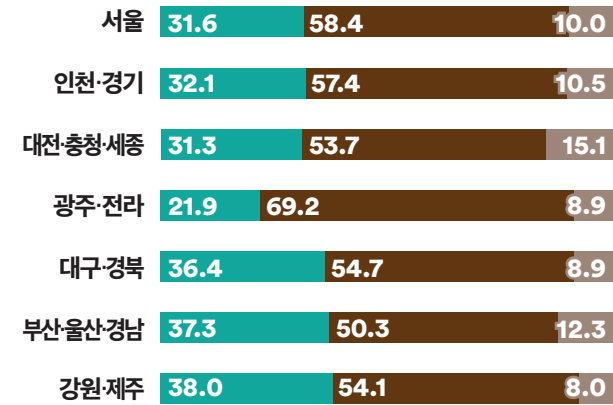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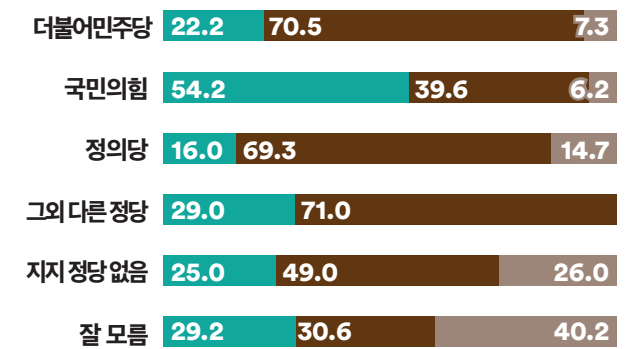
ARS

ARS 조사의 강원·제주를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에서 모두 ‘이준석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섬
ARS의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준석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명 찬성’,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제명 반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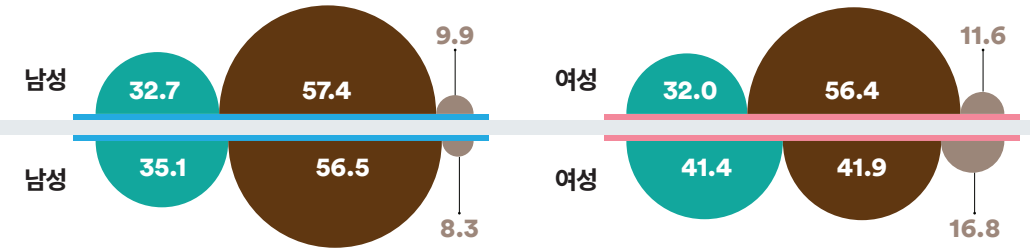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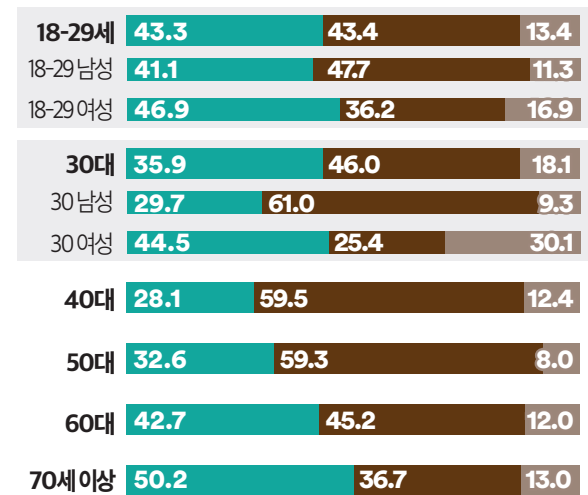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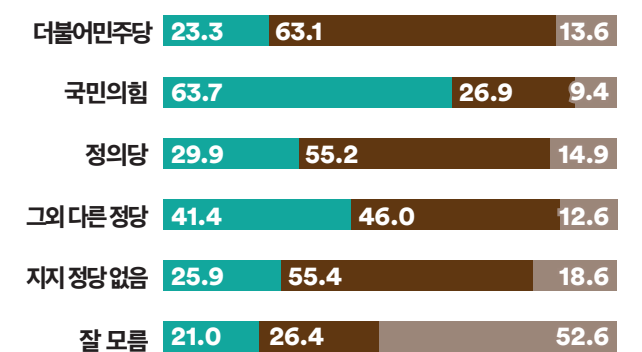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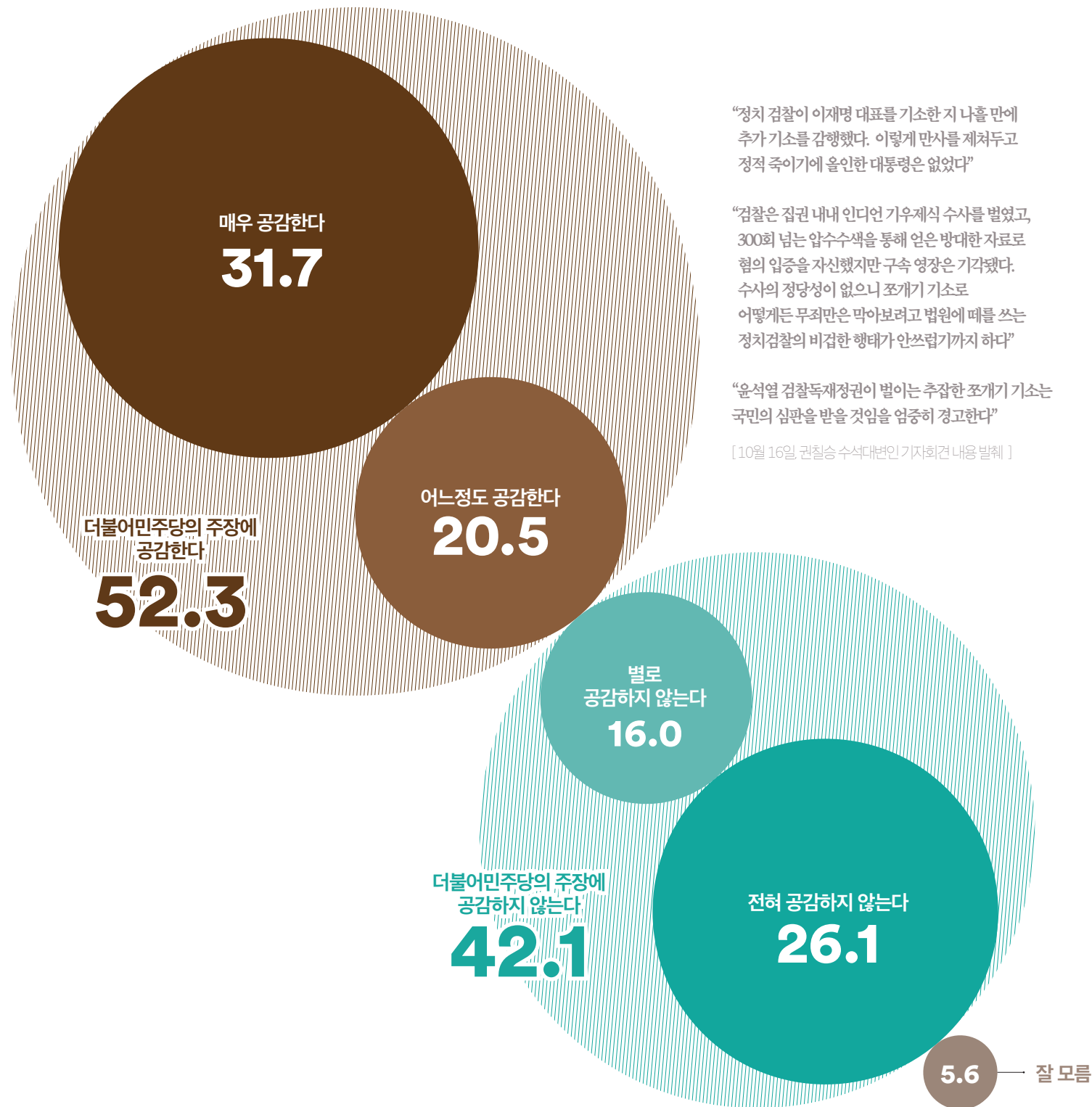
이전 대표 제명에 찬성한다 이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다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검찰의 쪼개기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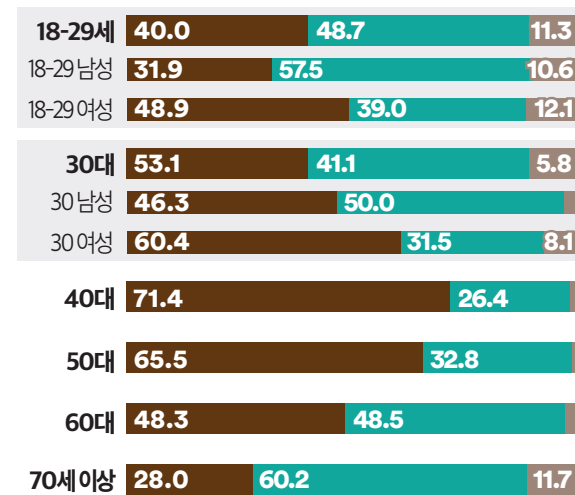
Q.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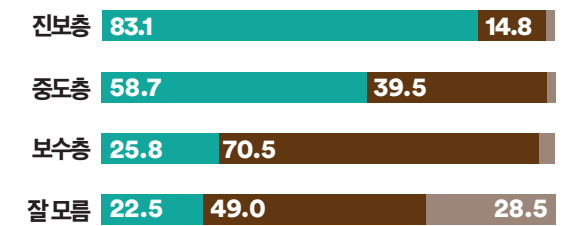


수도권과 호남 강원·제주 4개 권역에서는 ‘공감한다’, 충청과 TK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섬
남·녀 모두, 40·50대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0세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무당층은 ‘공감하지 않는다’가 앞서고, 중도층은 ‘공감한다’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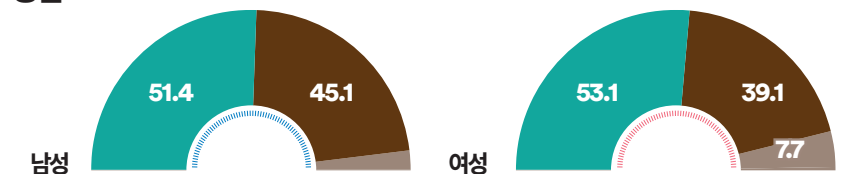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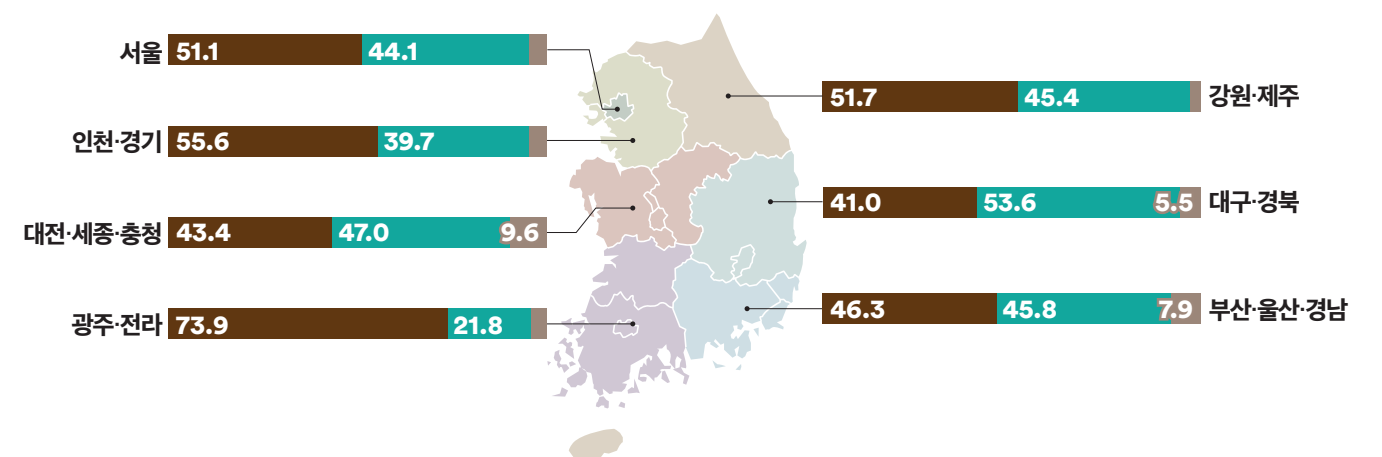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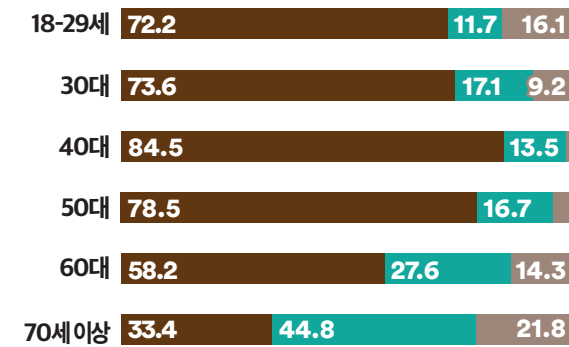


Q.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됐던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며 시세조종에 김건희씨 계좌가 쓰인 점이 재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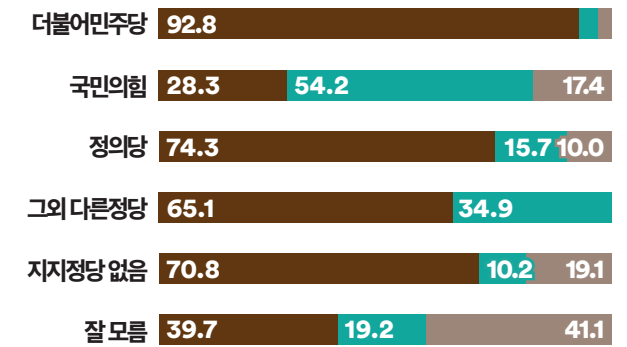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김건희씨 역시 주가조작에 가담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가담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응답 우세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압도적 비율로 ‘가담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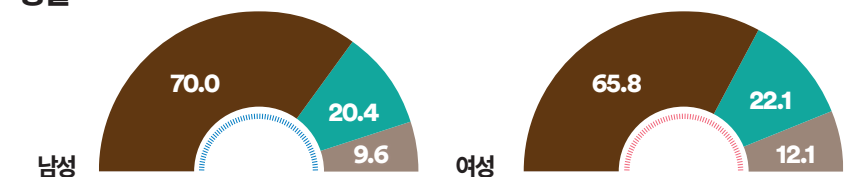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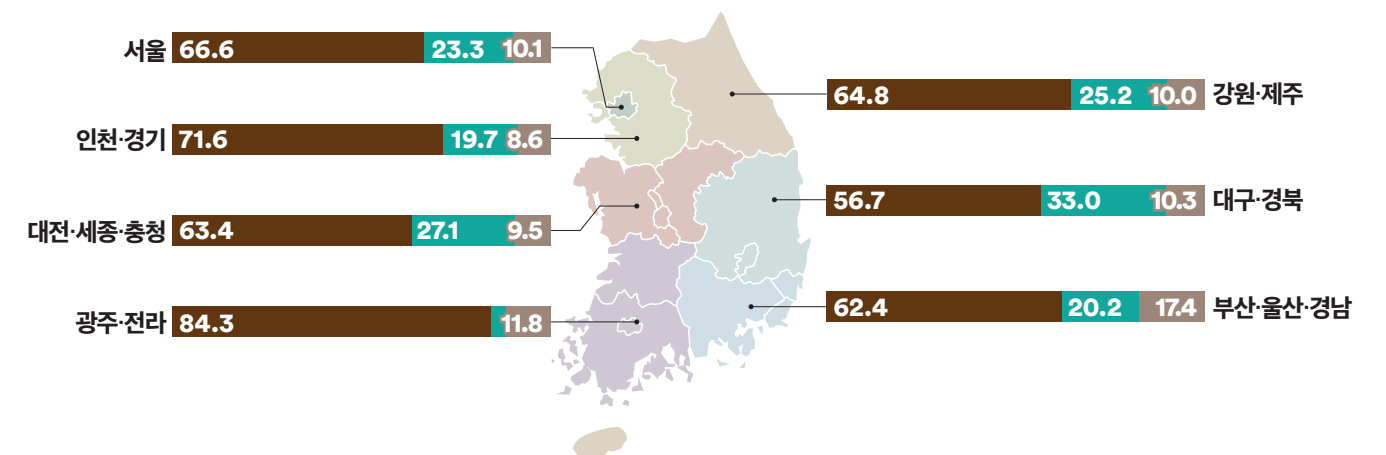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가담한것이라 볼 수 있다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10_05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